

„소피아뮤직위크“ 국제음악제 재단
불가리아 문화부
소피아 특별시
소피아 필하모니
국립문화궁전

제 53 회 국제음악제



2022. 5. 23 – 7. 2

음악회

„향과 탈춤의 향연“

공동개최: 주불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6 월 14 일
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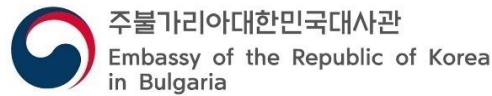
18 시

챔버홀
„잘라 불가리아“

주최 기관:



공동 주최 기관:



후원:



Национален
фонд
„Култура“



협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 53 회 소피아뮤직위크’의 한 부분을 주불가리아대한민국대사관이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향과 탈춤의 향연’을 들려줄 ‘동서악회(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는 서양음악 작곡가와 한국 국악인이 주축이 되어 창립한 단체로, “법고창신(法古創新),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기치 아래 한국의 전통 음악을 현대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이 시대의 음악으로 재해석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동서악회의 작품을 소개하고 한국의 음악을 불가리아 국민과 함께 나눈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불가리아 음악가들과 함께 협연하고 교류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라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은 세계 공통어”라는 말처럼, 소피아 뮤직위크에서 펼쳐지는 수준 높은 음악의 언어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음악회를 빛내주신 여러분, 한국에서 먼 길을 해 주신 동서악회 음악가, 불가리아 연주가, 소피아뮤직위크협회, 소피아시청, 문화부 관계자 등 공연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불가리아대한민국대사
이 호 식



**„향과 탈춤의 향연“ 음악회 모든 참가자들과 후원사, 협찬사,
파트너들에게**

존경하는 여러분!

국제 음악제 „소피아뮤직위크“는 여러분의 참가와 지원에 축하를 드리며 사의를 표합니다. 이 음악회는 한국의 음악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세계를 알려줄 새로운 예술 행사로, 한국의 현대 음악 작곡가들과 불가리아의 음악계를 연결해 주는 교량이 될 것입니다. 불가리아 청중에게는 한국의 풍요로운 전통 음악의 유산과 현대 음악을 만나보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음악적 관계를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은 주불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동서악회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 재불가리아 한인회 및 여러분들로부터 응원과 격려를 받았으며, 이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한국 음악을 소개하는 음악회가 계속되어 전통으로 자리매김되기를 바라며 이에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고 음악적 영감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 5. 31 일, 소피아에서,

목칠 게오르기예프 – „소피아뮤직위크“ 재단 회장



이제 제 53 회를 맞고 있는 국제음악제 „소피아뮤직위크“는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 시민들의 문화 생활에 활기를 더해 주는 근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소피아뮤직위크 관계자 여러분들이 모두 씩씩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많은 개인적, 기관간 협업관계가 형성되어왔고,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꾸준히 노력을 거듭하여 불가리아가 세계의 무대와 만날 수 있도록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음악회 „향과 탈춤의 향연“은 소피아뮤직위크 음악제가 작년에 불가리아와 대한민국간 창작의 교량을 만들어 나간다는 기치를 걸고 시작했던 기획의 연장이며 추가적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대 작곡가들을 소피아에 소개하는 것이 이제 음악제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음악회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악기를 연주할 음악가들도 불가리아를 방문하여 창작 활동을 위한 교류도 실현됩니다.

이처럼 소피아뮤직위크 음악제가 항상 새로운 것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끊임없이 우리의 음악적 생활을 윤택하게 해 주는 것에 대한 저의 치하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음악 감상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6.14 일

**빌리야나 게노바
수도 소피아 특별시 „문화국“ 국장**



제 53 회 Sofia Music Weeks International Festival 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랜 역사와 수준 높은 음악으로 국제적 명성을 쌓은
Sofia Music Weeks 에 동서악회가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창작곡으로 이루어진 동서악회의 공연은 한국 전통음악의 향기와
탈춤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연주될 작품들은 인생의 희로애락과
풍자, 해학을 담은 탈춤 음악과 현대 음악적 요소가 결합되어 새로운
감각으로 창작된 것으로서 한국 연주자와 불가리아 연주자들이 함께
연주합니다. Sofia Music Weeks 의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음악 축제에
한국과 불가리아의 음악가들이 함께 호흡하는 기회는 양국 간의
음악적 교감과 예술 교류의 지평을 넓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음악회를 위해 수고하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새로운 소리의 향연 속에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남
동서악회 회장



존경하는 여러분

제 53 회 „소피아뮤직위크“ 국제 음악제가 주최하는 „향과 탈춤의
향연“ 음악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연주될 작품들은 한국의 민속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국
작곡가들의 프로페셔널한 기량과 감성적 영역의 프리즘을 통해
굴절되 나온 것으로 우리에게는 한국 현대음악의 아름다움을
공감하고 느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음악회에서는 한국의 정통 국악기 연주자들이
불가리아 연주자들과 함께 연주를 합니다. 이는 동서악회가 우리
양자간 문화적 유대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하는 데에 있어서 그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미래에 펼쳐질 협력 관계에 대한 희망을 품어 보면서 이 음악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젠코 민킨
불가리아작곡가협회 회장

프로그램

침향무

황병기 (1936 - 2018)

가야금: 이해정, 국악 타악: 길석근

무신의 꿈

김위연 (1974 -)

대금 : 윤석만, 피아노: 미렐라 보이체바

피리와 현악 3 중주를 위한 <오방색 은울가락>

박윤경 (1974 -)

피리: 성상윤, 바이올린: 네기나 스토야노바,

비올라: 마리아 벌차노바, 첼로: 아나톨리 크러스테브

4 인의 연주자를 위한 <하회탈 놀이>

김수혜 (1971 -)

피리, 태평소 : 성상윤, 해금: 허운재, 25 현금: 이해정, 국악타악:

이유정, 첼로: 아나톨리 크러스테브

통영 오광대 중에서 <다섯 광대의 애가>

김광희 (1950 -)

소리: 조수황, 해금: 허운재, 25 현금: 이해정, 국악타악: 이유정,

첼로: 아나톨리 크러스테브

통소, 해금, 가야금과 3 인의 타악 주자를 위한 <북청사자춤>

이복남 (1965 -)

통소, 대금: 윤석만, 해금: 허운재, 25 현금: 이해정, 국악타악: 이유정,

타악: 미로슬라브 디모브, 찰리 밀로브

프로그램 노트

1. 침향무(1974)

,침향을 피우고 침향의 향기 속에서 추는 무용‘이란 뜻으로 1974 년 작곡된 황병기 선생님의 대표적인 가야금 연주곡이다. 1975 년 김매자가 안무하고 발표되었다. 불교 음악인 범패의 음계를 바탕으로 동양과 서양의 원시 정서를 표현한 작품이다.

2. 무신의 꿈 (2019)

종묘제례악의 후반부인 정대업 중에서, 태조 이성계의 무공을 찬양한 신정, 분응 두 부분을 현대적 음향으로 재해석하여 보았다. 곡의 주요한 선율적 요소로서 <황중-협중-중려-임중-무역>의 5 음 음계로 이루어진 원곡의 선율을 차용, 변화하여 사용하였으며, Octatonic 이나 Whole tone 과 같은 다양한 스케일을 바탕으로 수직적 울림을 구성하였다.

3. 오방색 은울가락 (2020)

은울은 황해도 서쪽 평야지대에 위치한 지역 이름이다. 은울탈의 특징은 인물에 따라 3-6 개의 둥근 혹이 나있다는 것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혹에는 5 개의 색상이 칠해져 있다. 맨 위는 황금색이고 그 아래로 청색, 붉은색, 흰색, 검은색의 띠를 둘렀다. 이것은 오방위의 신을 뜻하는 것이다. 황금색은 중앙의 신, 청색은 동쪽, 적색은 남쪽, 백색은 서쪽, 흑색은 북쪽의 신을 의미한다. 각 색에 맞춰 다섯 개의 가락을 가지고 은울탈춤의 반주로 쓰이는 피리 가락을 기악합주로 재구성해 보았다. E 플랫을 중심으로 동(B 플랫)-서(A 플랫)는 5 도 관계, 남(C)-북(G)는 3 도 관계로 하여 피리가 주선율을 끌고 나간다. 염불, 타령장단과 은울탈춤의 특징인 돛부리와 돌장단(긋거리 장단의 변이형)도 사용되었다.

4. 하회탈 놀이 (2021)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에 전승되어 오는 안동하회별신굿 탈놀이는 국가 무형문화재 제 69 호로 지정되어 전해 내려오는 대표적인 탈놀이이다. 탈놀이의 주제라 할 수 있는 과거승 마당과 양반풍자마당을 위한 네 마당의 도입부와 각각의 풍자로 이루어진 총 여섯 마당으로 전승되어진 작품을 오늘날의 소리로 재해석하여 계승하여 보고자 한다. 하회의 미소, 우리네의 정서와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내었던 하회탈을 소리로 표현하여 재창출하고자 하였으며 탈놀이가 가진 고유한 의미를 소리와 악기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5. 다섯 광대의 애가 (2021)

경상남도 통영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탈놀이인 통영 오광대는 문둥탈, 풍자탈, 영노탈, 농창탈, 포수탈의 다섯 과장으로 이루어졌다. 이 곡은 각 과장의 대표적인 탈들의 주요 대사를 가사로 삼아 판소리풍으로 작곡되었으며 문둥이, 말뚝이, 영노, 할미, 포수 등 다섯 탈들의 노래는 해금, 25현금, 첼로, 타악과 어우러져 양반들에게 받은 그들의 설움과 한 많은 심정이 원래의 탈춤과는 다른 분위기로 표현된다. 이 곡의 전체 구성은 서주에 이어 다섯 곡의 노래들이 서주에 나오는 요소들로 이루어진 짧은 연결구로 이어지며 서양음악의 요소와 악기들의 현대적이 주법이 더해져 현대와 전통이 서로 아우르는 작품이다.

6. 북청사자춤 (2020)

국가무형문화재 제 15 호로 지정된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정월대보름에 사자탈을 쓰고 놀던 민속놀이이다. 북청사자놀음은 세로로 부는 긴 통소가 우리 전통음악에서는 다소 생소한 음계로 헤테로포니적인 디튠(detune)가락을 반복해 나가는 점, 무뚝뚝한 북장단, 사자춤의 흥겹고 힘찬 동작 등이 다른 지역의 탈춤들과는 확연히 다른 북쪽 변방의 느낌을 준다. <북청사자춤>은 북청의 밤의 이미지를 그리는 도입부로 시작하여 전체적으로 길놀이, 애원성춤, 뉘두리춤, 사자춤에 나오는 가락들을 다채롭게 엮어 나간다.

작곡가



작곡가 **황병기**는 가야금 연주자로서 국악 작곡가이며 창작 가야금 음악의 창시자이다. 원래 법학과를 전공하면서 취미로 가야금을 타다가 국악인의 길을 택했다. 1963 년 <숲>을 내놓아 창작 국악의 지평을 열었다.

침향무(1974), 미궁(1982), 춘설(1993), 비단길(2001), 산조(2014) 등 많은 앨범을 냈다. 열 세권의 저서도 출판했다. 백상예술대상(1974), 예술평론가협회상(2001), 호암상(2004) 등 다수의 상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금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작곡가 **김위연**은 드라마음악, 연극음악 및 다양한 음반작업을 통해 대중들과 만나오고 있으며, 서양 현대음악 및 우리 음악의 영역에서도 다양한 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우리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 온 월드뮤직 그룹 „공명“과는 20년 이상 협업해오고 있다.

추계예대 졸업 후 도미하여 메네스 음악대학에서 석사를, 뉴저지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프리랜서 작곡가, 편곡가 및 피아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작곡가 **박윤경**은 현대의 새로운 소리를 추구함과 동시에 연주자들도 즐기면서 연주할 수 있는 곡을 만들고자 하는 작곡가이다. 서울대 작곡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시립대에서 석사를, 미국 럿거스 대학교(Rutgers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7 년 뉴욕 Merkin Concert Hall 에서 „Winter Overture for Orchestra“로 데뷔 후 뉴욕, 뉴저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다 2015년에 귀국, 현재 서울대, 단국대, 명지대학교에 출강하며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다.



작곡가 **김수혜**는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B.A.), 동대학원(M.A)를 졸업한 후, 프랑스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작곡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 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내외 다수의 콩쿠르 입상 및 국내외 음악제에 참가 및 초청 연주되었다. 제 35 회, 39 회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하였으며, 2019 GAUDEAMUS Festival 에서 작품이 초연되었다. 현재 청주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며, 소리목, 창악회, 한국여성작곡가회, ACL, ISCM 회원 및 동서악회 기획이사, (사)한국작곡가협회 학술연구 이사로 활동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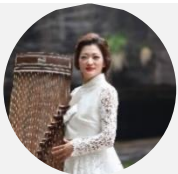


작곡가 **김광희**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Minnesota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작곡과 이론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 초빙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운지회 회장, 통영국제음악재단 이사, 한국 작곡가협회 이사, 동서악회 감사로 활동 중이다. 또한 ISCM 한국위원회, (사)ACL-Korea, 창악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하트하트재단과 콜텍문화재단 이사, 소극장 학전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작품들은 국내 뿐만이 아니라 독일,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지에서 연주되었다.



작곡가 **이복남**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럿거스 대학에서 작곡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0 루마니아 흑해 여름 축제, 2013 교토 아시아 관현의 현재 음악제에서 관현악곡이 연주되었으며, 중국, 일본, 러시아, 이탈리아, 영국, 뉴질랜드, 미국, 독일 등 국내외의 여러 음악제에서 작품이 초청 연주되었다. 이복남은 서양 현대 어법과 더불어 한국 전통음악에 관심을 가지며 다양한 한국음악의 원형 - 한국 전통음악 장단, 민요, 판소리, 정가, 산조, 한시, 탈춤 등 - 들을 소재로 하여 시대성을 반영한 작품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사)한국작곡가협회 이사장, (사)한국여성작곡가회 사무총장, 뉴욕인국제음악제 음악감독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명지대학교 교수, 동서악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주자



이해정/가야금

경기가야금양상블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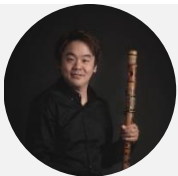
국가무형문화재 제 23 호 가야금병창 및 산조 전수자

길석근/국악타악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우리가락교육연구회 회장

동서악회 부회장



윤석만/대금

국가무형문화재 제 17 호 봉산탈춤 이수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원 출강

미렐라 보이체바/피아노

불가리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등에서 다수의 콩쿨에 입상

불가리아 국립 스테판 마케돈스키 뮤지컬 극장 반주자



성상윤/피리, 태평소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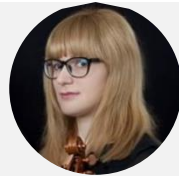
중요무형문화재 제 46 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전수

국악팀 '낭만판소리' 동인

네기나 스토야노바/바이올린

현대음악 전문 현악 4 중주 „프로쉬“ 창단

다수의 페스티벌에 참가, 불가리아국립라디오 임원



마리야 벨차노바/비올라

- 현악 4 중주 „프로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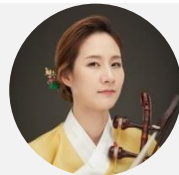
- 불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등 다수 콩쿨 수상

아나톨리 크르스테브/첼로

소피아국립음악아카데미 교수

독일, 영국, 벨기에, 브라질, 미국, 프랑스 등에서 연주

다수의 음악제,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



허윤재/해금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박사 졸업

- 현 수원대학교, 추계예술대 교육대학원 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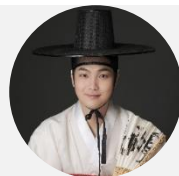
이유정/국악타악

서울국악관현악단 단원 역임

국립국악중학교/ 광주예술고등학교/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강사 역임

한국예술종합학교 창작무용원 반주강사



조수황/남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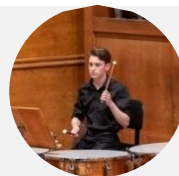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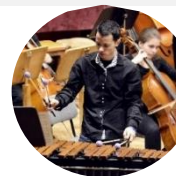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국악과 졸업

국가무형문화재 제 5 호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

미로슬라브 디모브/타악

소피아국립음악아카데미 부교수

국립음악고등학교 강사



찰리 밀로브/타악

소피아국립음악아카데미 재학생

2022 타악기콩쿨 대상 수상